KBS 교향악단

KBS S.O. 830th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2026. 9. 10. THU 20:00

롯데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02-6099-7400
Ⓕ 02-6099-7416
Ⓗ www.kbssymphony.org
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시벨리우스 **J. Sibelius**	**포욜라의 딸, 작품 49** **Pohjola's Daughter, Op. 49**	13′
프로코피예프 **S. Prokofiev**	**피아노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16** **Piano Concerto No. 2 in g minor, Op. 16** I. Andantino – Allegretto 조금 느리게 – 조금 빠르게 II. Scherzo: Vivace 스케르초: 빠르고 활기차게 III. Intermezzo: Allegro moderato 간주곡: 적당히 빠르게 IV. Finale: Allegro tempestoso 피날레: 폭풍처럼 빠르게	30′
인터미션	**Intermission**	15′
시벨리우스 **J. Sibelius**	**교향곡 제6번 d단조, 작품 104** **Symphony No. 6 in d minor, Op. 104** I. Allegro molto moderato 매우 빠르되 절제된 속도로 II. Allegretto moderato 적당히 조금 빠르게 III. Poco vivace 조금 활기차게 IV. Allegro molto 매우 빠르게	28′
시벨리우스 **J. Sibelius**	**교향곡 제7번 C장조, 작품 105** **Symphony No. 7 in C Major, Op. 105**	22′

✣ 총 소요시간: 110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dreas Zihler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핀란드 출신 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Pietari Inkinen)은 동세대를 대표하는 지휘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큰 스케일로 사고하는 지휘”와 지적인 깊이, 뛰어난 테크닉을 겸비한 음악가로 찬사를 받고 있다.

그는 교향악과 오페라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프랑스 방송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시드니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 악단을 지휘했다.

그는 2025년 4월 베이징 국가대극원(NCPA)에서 다비데 리베르모레가 연출한 바그너의 <발퀴레>를 지휘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2025/26 시즌에는 마조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베르겐 필하모닉,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아이슬란드 심포니 등에 다시 초청받았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도이치 라디오 필하모니 자르브뤼켄 카이저슬라우테른 수석지휘자를 역임하며 해외 투어와 음반 작업,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악단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외에도 일본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프라하 심포니 수석지휘자, KBS교향악단 음악감독, 루트비히스부르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그는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재임 당시 낙소스(Naxos)를 통해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을 녹음했으며, 명료함과 정교함, 북유럽 특유의 분위기를 살린 해석으로 호평받았다. 이후 일본 필하모닉과 도쿄 산토리홀에서 두 번째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실황 녹음하며 시벨리우스 해석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바이올리니스트로도 뛰어난 기량을 갖춘 잉키넨은 퀼른 국립음대에서 자하르 브론에게 바이올린을 사사한 뒤,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공부했다. 바이올린과 지휘를 아우르는 음악적 배경은 프레이징과 음색, 구조적 균형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그의 교향악과 오페라 해석을 특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Pietari Inkinen

Conductor

©Sasha Gusov

피아노 보리스 길트버그

보리스 길트버그는 시적인 상상력과 분석적인 통찰력을 겸비한 피아니스트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특히 라흐마니노프, 베토벤, 라벨 등 주요 작곡가들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 왔다.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그의 연주에서 "정신적 평온과 강렬한 몰입의 교차가 매혹적"이라며 "이보다 더 명료하고 서정적이며 풍부한 해석을 바라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2026/27 시즌에는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그랜드홀에 데뷔해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도이치 캄머필하모니와 거슈윈 피아노 협주곡과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협연한다.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주예술가(Artist-in-Residence)로서 마크 위글스워스와 두 차례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두 사람의 협업은 바르샤바에서 선보이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KBS교향악단과 첫 협연 무대를 갖고 빌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도 데뷔한다.

런던 위그모어홀 협력예술가(Associate Artist)로 활동하며 이번 시즌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세 차례의 리사이틀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스위스 로잔의 '르 그랑 레시탈', 홍콩 프리미어 퍼포먼스, 베를린 피아노 페스티벌 등에 출연하며, 객원 예술 큐레이터(Guest Artistic Curator)로 활동 중인 포틀랜드 피아노 인터내셔널 무대에도 다시 오른다.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파벨 하스 콰르텟과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실내악 무대를 갖는다.

그는 2020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녹음한 데 이어 위그모어홀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 전곡을 완주했고, 세계 각지에서 베토벤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다. 라흐마니노프 스페셜리스트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오푸스 클래식, 디아파종 도르, 그라모폰상 등 다수의 음반상을 수상했다. 체코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NHK 심포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브뤼셀 보자르, 빈 콘체르트하우스 등 주요 공연장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201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길트버그는 공연장 밖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알리고 소통하는 데 힘쓰고 있다. 비전문가를 위한 블로그 'Classical Music for All'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라모폰, BBC 뮤직 매거진, 가디언, 더 타임즈, 포노 포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Boris Giltburg

Piano

시벨리우스 / 포욜라의 딸, 작품 49
J. Sibelius / Pohjola's Daughter, Op. 49

작곡 1905년~1906년
초연 1906년 12월 2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편성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2, 코넷 2,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13분

문학가 엘리아스 뢴로트는 핀란드 오지를 누비며 입으로 떠돌던 신비로운 이야기 50편을 채록해 거대한 민족 서사시 <칼레발라>를 탄생시켰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후, 젊은 작곡가 시벨리우스 역시 민족운동의 열망을 품은 아내의 영향으로 이 전설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초기작의 격정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평생을 태고의 신화 속에서 살았으며, '포욜라의 딸'은 그 깊은 몰입이 낳은 결정체다.

북방의 전설 지대 '포욜라'는 아득한 세계지만, 지휘봉의 손짓 끝에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청중은 눈 덮인 북유럽 숲 한가운데로 떨어진다. 마법을 부리는 늙은 영웅의 맹렬한 썰매 질주, 하늘 무지개 위에서 금실을 잣는 우아한 환영, 처녀가 내건 불가능한 과업과 도끼에 찍히는 비극적 부상, 그리고 뼈아픈 좌절까지 낯선 설화의 서사는 생생한 음향의 환각이 되어 청중의 감각을 뒤흔든다.

작품 속에는 전혀 다른 두 차원이 대립한다. 저음 목관악기가 뿜어내는 어둡고 심오한 g단조 화음과 주문처럼 피어오르는 첼로 음색은 기묘한 긴장감을 감돌게 한다. 현악기들이 빗줄기처럼 반복하는 16분음표 음형은 미니멀 음악의 환각적 패턴이 되어, 눈보라를 뚫고 질주하는 썰매에 올라탄 듯한 착각을 부른다. 그러다 문득 눈부시게 찬란한 E장조의 빛이 쏟아진다. 하프의 아르페지오와 플루트의 떨림이 그려내는 자태는 지독하게 아름답고도 아련하다. 어둠과 빛, 저음과 고음이 엉켜 격정으로 치달을 때 음악회장은 신비로운 음향의 폭풍 속에 빠져든다. 지독한 불협화음이 비극의 종말을 고하고 여인이 사라지면, 마지막 마디의 모렌도(소멸해 가는) 선율 속에서 영웅의 서사는 차갑게 얼어붙으며 조용히 멈춰 선다.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16
S. Prokofiev / Piano Concerto No. 2 in g minor, Op. 16

작곡 1912년~1913년(1923년 개작)
초연 1913년 9월 5일, 러시아 파블롭스크
편성 피아노 독주,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큰북, 심벌즈, 작은북, 탬버린, 현5부
연주시간 약 30분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음악의 타악기적·원시적 성향은 독보적인 서정성과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 거칠고 강렬한 음향 뒤에 이를 부드럽게 감싸는 아름다운 서정이 흐르기에, 그의 음악은 청중과 깊은 감성적 공감을 형성한다. 이는 건조해지기 쉬운 현대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중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었으며, 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20세기 이후 피아노 문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g단조 피아노 협주곡 2번은 1913년 작별 편지를 남기고 자살한 동문 슈미트호프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중 화재로 원본이 소실되어 1923년 작곡가가 직접 복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재창작되어 그 스스로 피아노 협주곡 4번(프로코피예프는 총 5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다)이라 부를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1913년 9월 5일, 20대 초반의 프로코피예프가 당당한 태도로 무대에 올라 초연을 선보였을 때 청중은 충격적인 음향과 기교에 격양되어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1915년에 이르러 작품의 아방가르드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스트라빈스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은 총 4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피아니스트를 극한으로 몰아가는 정신적 그리고 기교적 난해함이 비교적 간결한 오케스트라와 대조돼 더 두드러진다.

I. Andantino – Allegretto
기교적으로 압도적이고 감정적으로는 극도의 신중함과 신비로움을 지닌 채 시작되는 제1악장은 서정적이고 우수에 찬 제1주제와 리듬적이고 기괴한 느낌을 주는 제2주제, 지극히 어려운 거대한 카덴차가 특징이다. 첫악장과 마지막 악장의 과장될 만큼 규모가 확장된 카덴차는 이 작품의 큰 특징 중 하나다.

II. Scherzo: Vivace
d단조의 제2악장 스케르초는 비바체 빠르기로 피아노가 처음부터 끝까지 16분음표를 연속적으로 연주하는 토카타 풍의 추진력 넘치는 악장이다. 3부 형식의 2악장은 줄곧 숨 돌릴 새 없는 긴장감과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된다. 시작부터 당당함과 화려함을 가지고 연주되는 피아노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악장은 피아노 주제와 더불어 현악기의 피치카토를 사용하여 리듬의 성격을 정리하고 관악기가 스케르초를 표현하는 음형을 함께 엮어 유머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III. Intermezzo: Allegro moderato
간주곡으로 명시된 제3악장은 중후하면서도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제부는 관현악의 저음 서주로 시작되어 무거운 정박으로 진행한다. 애호가라면 알아챌 수 있는, 작곡가의 발레 모음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을 떠올릴 만큼 유사한 진행을 보이는 부분이 더러 있다. 선율이 충분히 진행된 뒤 피아노는 글리산도 음형을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오케스트라와 만나면서 독특한 색감을 가진 음색으로 만들어낸다.

IV. Finale: Allegro tempestoso
g단조로 복귀한 피날레 제4악장은 화려하면서도 생동감 넘친다. 프로코피예프의 야성적인 표현과 함께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마지막 악장은 버르토크 등이 즐겨 사용하던 순환구조 형식을 차용한 악장이다. 이내 러시아 민속풍의 d단조 선율이 삽입되고, 알레그로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플루트와 현악기의 선율에 피아노까지 합세하며 클라이맥스로 고조된다. 한차례 폭풍 후에 오는 고요함처럼 다시 진지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가라앉은 후 피아노의 카덴차가 나타난다. 짧은 코다 후 잠시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지만 이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화려한 결론으로 작품의 끝을 마무리한다.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6번 d단조, 작품 104
J. Sibelius / Symphony No. 6 in d minor, Op. 104

작곡 1914년~1923년
초연 1923년 2월 19일, 핀란드 헬싱키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팀파니,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28분

엘리아스 뢴로트가 민족의 옛 노래들을 채록한 이후, 시벨리우스 역시 태고의 신화와 자연에 깊이 매료되어 생애 후반기에 더욱 고요한 음향의 신화 속으로 들어섰다. 1918년경부터 구상되어 1923년에야 마침내 완성된 교향곡 제6번은, 찬란한 웅장함보다는 정제된 침묵과 아득한 분위기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작품이다. 작곡가 스스로가 이 곡을 가리켜 현대음악의 온갖 화려한 음료들에 대비되는 '차가운 샘물'이라 칭했듯, 오늘 무대에서 흘러나올 음향은 순수하고 깨끗한 북유럽 자작나무 숲의 공기를 연상시킨다. 또한 시벨리우스는 이 곡이 항상 '첫눈의 향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나지막이 고백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명확한 으뜸음의 지배를 받는 전형적인 고전적 단조에서 벗어나, 고대 교회 선율인 라 도리아 선법(Dorian mode on D)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 지휘봉이 오케스트라의 숨결을 끌어올리는 순간, 객석의 청중은 서서히 안개가 걷히는 태고의 설원 한가운데로 인도된다.

I. Allegro molto moderato
1악장은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그려내는 천상적인 현악의 흐름으로 조용히 시작되어, 목관과 금관, 팀파니가 가세하며 점차 시공간을 잊게 만드는 아득한 평온함을 선사한다.

II. Allegretto moderato & III. Poco vivace
2악장과 짧고 경쾌한 3악장은 마치 눈 덮인 숲속을 힘차게 질주하는 듯한 리듬감과 투명한 악기 배치로 신비로운 긴장감을 엮어낸다.

IV. Allegro molto
마지막 4악장에 이르면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이 주고받는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자연의 거대한 순환이 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소멸해 가는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과정이 펼쳐진다. 화려한 폭발 대신, 지속되는 D음 위로 바이올린의 음형이 아득히 사라지며 조용히 막을 내리는 마지막 순간은, 마치 하나의 계절이나 인간의 한 생애가 정적 속으로 승화되는 듯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7번 C장조, 작품 105
J. Sibelius / Symphony No. 7 in C Major, Op. 105

작곡 1914년~1924년
초연 1924년 3월 24일, 스웨덴 스톡홀름
편성 플루트 2(피콜로 겸주),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22분

1917년 말, 시벨리우스는 자신의 노트에 "머릿속에 교향곡 6번과 7번의 구상이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약 6년간의 정밀한 가공 끝에 1924년 완성된 교향곡 제7번은 그의 교향곡 창작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위대한 완성이었다. 1924년 스톡홀름 초연 당시 '교향적 환상곡'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세상에 선보인 뒤 1925년 정식 교향곡으로 확정된 이 곡은, 기존의 전통적인 다악장 형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단 하나의 연속된 악장 속에 교향곡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서사와 역동성을 압축해 넣은 유일무이한 걸작이다.

무대 위에서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피어오를 이 곡은, 끊임없는 주제의 변형과 번뜩이는 관현악의 색채감으로 청중의 감각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작곡가는 처음 계획했던 구상을 넘어 음악적 아이디어가 스스로 유기적인 형태를 갖추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불과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펼쳐지는 관현악의 요동은 아득한 시간의 정적과 웅장한 대자연의 서사를 동시에 선사한다.

곡의 도입부에서 나직하게 피어오르는 팀파니와 현악의 엄숙한 음형은 청중을 아득한 신화의 정점으로 이끈다. 곧이어 뿜어져 나오는 호소력 짙은 트롬본의 메인 모티프는 짙은 어둠을 뚫고 솟구치는 거대한 빛의 기둥처럼 무대 위를 가득 채운다. 완급을 조절하며 끊임없이 변모하는 템포 속에서 선율들이 격정적으로 얽혀들 때마다 객석은 신비로운 음향의 폭풍 한가운데로 빠져든다. 마지막 순간, 모든 음형이 한데 모여 찬란하게 도달하는 다장조의 종결부는 평생에 걸쳐 교향악이라는 우주를 탐구했던 거장이 다다른 가장 완벽하고 숭고한 결말을 증명한다.

이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한 뒤, 시벨리우스는 마치 할 일을 모두 마친 사람처럼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교향곡 7번을 세상에 내놓은 지 33년이 지난 1957년 9월 20일, 거장은 핀란드 예르벤패에 위치한 자신의 정든 서재 '아이놀라'에서 91세를 일기로 호흡을 정지했다. 평생에 걸쳐 북유럽의 신화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깊은 고독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던 거장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집과 숲의 정적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핀란드 음악사의 위대한 한 시대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글 | 김은중(음악 칼럼니스트)

무대의 처음과 끝을 지킨 사람

정기연주회 날 관객이 객석에 들어서기 훨씬 전, 조명도 켜지지 않은 무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공연이 끝나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무대에 남아 있는 사람, 바로 악기담당 유재식이다. 2000년 5월 입사해 27년간 수많은 공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언제,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나요?

A 국립교향악단 시절부터 악기담당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를 가끔 도와드리며 교향악단의 일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그 자리에 지원하여 입사하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늘 공연과 무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악기담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38년, 제가 27년을 근무했으니 저희 부자가 KBS교향악단의 70년 역사 중 65년을 함께 했네요.

Q 교향악단의 '악기담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A 저는 "악기와 무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들이 가장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세팅하고, 공연에 필요한 악기를 제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눈에 보이는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악기의 반입부터 무대의 단 높이, 공연장 온도와 조명의 세기까지 연주에 필요한 환경을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공연이 없을 때도 공용악기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필요한 시기에 수리하거나 새로운 악기를 구매하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02년 북한 공연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에서 보냈지만 그때 만났던 북한의 악기담당과 연주자들 그리고 함께 만들었던 무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주 공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악기를 주로 배로 운송하다 보니 기상 상황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하거든요. 한번은 공연 시작을 불과 10분 앞두고 악기가 공연장에 도착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구할 수 있는 악기들을 최대한 대여해 놓은 상태였죠. 다행히 악기 도착 후 급하게 무대를 세팅해 연주자들은 자신이 늘 연주하던 악기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Q 오늘 무대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얼마 전 한 직원이 퇴직하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냐고 묻더군요. 이상하게 사람보다 '팀파니'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매일 보고, 만지고, 옮기던 악기들이 이제는 제 일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그런 대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악기 연주도 못 하는 제가 교향악단에서 2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아주 평범했던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무대를 세팅하고 악기를 제자리에 놓은 뒤 리허설이 시작되면 가끔 객석에 앉아 연주를 듣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객석에 앉아 제가 준비한 무대를 바라보며 음악을 듣던 순간들이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KBS교향악단**

클래식의 감동을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확장해 온 서영재 PD!
클래식의 매력을 향한 그의 열정이 가득 담긴 이 책이,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과 새로운 영감의 문을 열어주길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2026년 봄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

'궁예 레퀴엠', '강호동 협주곡'을 만든 KBS교향악단 서영재 PD의 첫 책

"클래식의 감동을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확장해 온 서영재 PD!"
- 소프라노 조수미 -

소프라노 조수미,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지휘자 안두현, 크리에이터 송사비 추천!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소재희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상우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Vesa-Matti Leppänen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유지홍 수석
클라리넷 조성호 수석
호른 Martin Schöpfer 수석
트롬본 Alexandre Faure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전현정 **대리**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손지수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유재식, 정오준, 김경오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신재영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정태훈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하단의 공통혜택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 ('kbsso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감사 **고태관**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Symphony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Cantata
김영기 변호사
김원희
매크로통상(주)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Nocturne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한문규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NH투자증권
(주)유카스 정광훈 대표

Prelude
권정숙
김연주 BCS ASSET CONSULTING 세무사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병원
박옥균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앤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유민
장희용 변호사
전희재 노무사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주)코스모스악기
하나은행

2026년 협찬 기업

비씨카드(주) **(주)코리아타임스** **(주)우리카드**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주)서울경제신문**	1억원 이상
(주)신한은행	3천만원 이상
엘앤티렉서스(주) **씰리코리아컴퍼니(유)** **대한소방공제회** **(주)소다**(현물협찬)	1천만원 이상
(주)광주은행	5백만원 이상
일동후디스(주) **유한킴벌리(주)** **(주)메이블** **(주)닥터맘**	임산부음악회 물품후원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씰리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